

# “모두가 누리는 행복 체감도 만점 복구 만들겠다”

## 민선8기 2주년 문인 광주 복구청장 '생태친화도시조성' 역점 사업 꼽아 '경제현장지원단' 중소·상인 도와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 도약

“민선 8기 전반기 2년간 이뤄낸 변화를 동력 삼아 남은 하반기 2년 민심의 목소리를 구정에 녹여 복구를 모두가 누리는 행복 체감도 만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인 복구청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경제는 더 낙낙하게, 문화는 더 품위 있게, 사회는 더 안전하게 복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문 청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광주 자치구 최초 5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2022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체 1위를 차지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혁신 행정을 완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청장은 민선 8기 2년 주요 성과로 생태 친화·민생경제·포용복지·항구적 안전·청년 활력·생활SOC·미래 먹거리 정책 등을 꼽았다.

그는 올해도 복구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생태 친화 도시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 청장은 “지난 5월 복구 화암동 일원

에 자리잡고 있는 평두메습지가 광주 최초이자 국내 26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됐다”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환경단체와 협업해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비롯해 무등산 탐방 시설 마련 등 평두메습지를 활용·보존하겠다. 무등산부터 영산강까지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 친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구는 지난해 지역 기업 대상 동남아 시장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1896만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미주 시장을 공략해 325만달러 실계약과 675만달러 약정계약을 체결했고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도 무역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 청장은 “광주 최초 국 단위 '경제현장지원단'을 필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전문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다변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도 힘쓴다. 문 청장은 “복구에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힘써 소외된 상권을 없애고 민생경제 회복 상상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디딤돌 3無 특례보증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해 소상공인 자생력



문인 광주 복구청장. 광주 복구제공

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대상 확대를 통한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과 고령 친화 사업을 추진해 여성·아동·노인 등 복구를 3대 친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 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전담 조직을 신설,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 확대해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1월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며 “고령친화도시 3년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고령 친화 사업을 추진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구적 안전 도시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문 청장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624억원을 투입해 문흥동성당·복구청사거리·신안교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서방천 일원과 공구의 거리는 339억원 규모 하수도 관리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항구적인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미래정책관을 중심으로 복구 청년센터 활성화,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시행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문화센터, 체육관, 도서관 등 총 10개소 1400억원 규모의 생활SOC 르네상스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관 건립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도시브랜드 확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AI·드론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복구의 새로운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문인 청장은 “앞으로의 2년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모두가 상상하는 미래로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살맛 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복구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구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행정서비스 평가 4년 연속 1위 서구, 한국표준협회 주관

광주 서구는 지난 2일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2000년부터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평가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집계된 친절지수 67점이 올 상반기 93.5점으로 상승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를 통해 신속·정확한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였고 공유주차장 확보, 생활민원 해결 및 동별 특색을 반영한 BI(Brand Identity)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행정서비스 1위 구청답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친절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상이 기자

## '2기 감자 서포터즈' 활동 마무리 광산구, 감염취약시설 교육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돕는 제2기 감자 서포터즈가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광산구 2기 감자 서포터즈는 1기보다 3배 많은 72명의 시민, 대학생 등이 참여,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활동했다.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는 물론 어린이집, 경로당, 이주민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120개소, 55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주민이 많은 광산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교육도 진행했다.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2기 감자 서포터즈 활동 성과보고회를 열어 활동이 우수한 6팀을 시상하고, 향후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광산구는 감염병 대유행에 시민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감자 서포터즈 운영에 나섰다.

1기가 성공을 거두며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른 가운데, 올해 광주시, 광주 서구와 남구가 광산구 사례를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광산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기 감자 서포터즈 활동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광주 광산구 제공

## 남구 도금마을에 '거미줄 LPG 배관망' 구축

배관 길이만 2.34km 달해 저장탱크 통해 50세대 공급 가구당 37만원 이상 절감

광주 남구 대촌동 도금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LPG 배관망이 거미줄처럼 깔리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1년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3일 남구에 따르면 도금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준공식이 오는 8일 오후 3시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지

방의원, 한국 LPG 사업관리원장,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가 참석할 예정이다.

50여세대가 모여 사는 도금마을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등유 등을 주 연료로 사용하며 생활했다.

남구는 마을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 지난해 1월부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전개했다.

도금마을에는 18개월여 만에 LPG 공급을 위한 배관망 길이만 2.34km에 달할 만큼 촘촘하게 구축됐다.

LPG 공급망의 거점은 마을 들머리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앞 마당에 설치한 LPG 소형 저장탱크 2기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북쪽으로 제각각 흩어져 있는 모든 세대를 연결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루트 체계를 완성했다.

남구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연간 35~40%가량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인 가족의 1년간 등유 사용량은 약 708리터로, 연료 비용만 105만7752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금마을 주민들의 한 해 연료비는 정부 자료와 그동안 등유 가격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가구당 최소 37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박찬 기자



## '일자리센터 치평' 개소 서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가 상무지구에 9번째 일자리 센터를 개소했다.

3일 서구에 따르면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맥스 건물 1층 365민원봉사실 내부에 '일자리센터 치평'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에 나섰다.

센터에서는 총 3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근무하며 △상무·치평 일원 기업(氣UP)매니저 활동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최신취업 정보 및 취업지원제도 안내, 취업박람회, 취업지도교육 개최 지원 △구직 등록 후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대상 100일 취업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구직자들의 적성과 경력을 면밀히 진단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